

## 그림책 읽어주기에서 그림책의 종류가 부모의 읽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ext Genre on Parent's Reading Behavior :  
Joint Picture Book Reading

김정화(Jung Wha Kim)<sup>1)</sup>

### ABSTRACT

This study measured various types of joint book reading behaviors of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using two different text genres. Participants were the parents of 35 preschool children 4 years of age. Parent-child dyads were videotaped during periods of joint book reading using two different types of text (informational and narrative). Results indicated differences in maternal behavior between the two types of texts. The informational book elicited a higher amount of print concept behaviors and more content behavior while reading the narrative book. Among content-related behaviors parents used more labeling during the informational genre. On the other hand, parents' use of description and judgm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arrative genre compared with the informational genre.

**Key Words** : 문자개념(print concepts), 읽기행동(reading behavior), 그림책의 종류(text genre) labeling during the informational genre. On the other hand, the parent's use of description and judgem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arrative genre compared to the informational genre.

### I. 서론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사고의 수단이다. 특히 현대에는 인쇄물의 증가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매체의 발달로 문자언어의 의사소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능숙하게 읽지 못하거나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접근이나 활용 면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의 성공은 읽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잘 읽지 못하는 유아는 불리하기

<sup>1)</sup> 숭의여자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ung Wha Kim,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gui Women's College, Seoul 100-751, Korea

E-mail : jwkim@sewc.ac.kr

쉽다(Catts & Kamhi, 1999). 따라서 되도록 어린 시기에 문자 언어를 습득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아기 문자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유아의 읽기학습 방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읽기습득의 씨앗은 유아기에 문자가 풍부한 환경 안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경험을 풍부히 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한다.

미국과학학회(NAF)는 읽기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읽기를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유아기 환경을 자극해 주는 것, 양질의 읽기 교수를 제공해 주는 것, 읽기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소들 즉 감각적 인지적 언어적 손상을 제거해 주는 것 등이다(Snow, Burns, & Griffin, 1998).

책읽기 경험은 유아의 초기 읽기와 문식성 발달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으로 소개되고 있다. 긴밀한 사회적 활동으로서 책읽기는 유아들에게 언어적, 개념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어린 시기의 책읽기는 유아 혼자서 읽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성인이 유아기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내용과 그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유아의 관심을 프린트에 고정시킴으로써 유아가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이다. 유아기의 책읽기는 유아의 이해언어와 표현언어 능력 및 초기 문식 기술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seman & de Jong, 1998).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책읽기의 빈도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은 유아기의 책읽기의 빈도가 이후의 언어발달이나 문식성발달 검사 변인의 약 8%를 설명하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Bus, van IJendoorn, & Pellegrini, 1995;

Scarborough & Dobrich, 1994). 초기 문식경험에서의 조그만 차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커지고, 이후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빈도는 책읽기를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일 뿐이다.

부모들은 책을 읽을 때, 단순히 본문을 읽는 것 이상의 것을 한다. 그들은 그림을 묘사하고, 사물을 명명하고, 사건을 설명하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유아의 생활경험과 관련짓는다. 사회적-구성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제공하는 그림책 본문 이외의 말들이 유아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맥락을 조성하고 유아들이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보다 복잡한 언어적인 표현을 하도록 도와준다. 책읽어주기에서의 부모의 말과 질문에 관한 연구는 부모가 하는 말의 양(De Temple & Snow, 1996), 말의 추상적인 수준(van Kleeck et al., 1997), 그리고 자신의 상호작용을 유아의 언어와 인지능력에 맞추기 위해 부모가 사용하는 전략(Pellegrini, Perlmutter, Galda, & Brody, 1990; van Kleeck & Beckley-McCall, 2002)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먼저, 책 읽어주기에서 부모들이 사용하는 말 중 유아들의 이후의 문식성 발달에 특히 중요한 말의 형태를 Heath(1982)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설명(what-explanation)으로,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질문이다. 유아들이 이야기 사건을 순서화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제목을 기억하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는, 보다 진전된 형태의 말로 이유에 대한 설명(reason-explanation)이 있다. 이는 유아들이 등장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한다. 이러한 형태의 질문을 통해 유아들은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이야기 안에 숨어있는 많은 관련성들을 찾아내어서

이해하게 된다. 세 번째 형태는 정의적인 언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칭찬할 만한지 비난받을 만한지 등도 묻는다. Wells(1985)는 이야기 사건에 대한 예측도 유아의 문식 지식에 의미있는 것으로 강조했다. 유아가 이야기 사건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건 너머에 있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측은 무엇에 대한 설명(what-explanation)과는 다르다.

Sigel(Stinson, & Kim, 1993)의 담화에 기초한 인지적 확장(cognitive distancing) 모델은 이야기책을 읽는 동안 어머니가 하는 말의 수준을 개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높은 수준의 확장전략은 유아가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서 지적으로 확장해 가도록 요구한다. 예측과 추론뿐만 아니라, Heath(1982)의 이유에 대한 설명도 본문이나 그림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결론을 유추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수준 높은 확장전략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낮은 수준의 확장전략에는 Heath(1982)의 무엇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는데, 즉, 삽화에 있는 사물이나 본문의 사건을 명명하거나 서술하라는 요구들이다. 유아의 노력을 수용하는 피드백이 수반된 높은 수준의 확장전략을 부모가 사용할 경우, 유아의 기술발달이나 표상능력과 정적으로 상관을 보인다고 Sigel은 주장한다. Pellegrini, Brody, Sigel(1985) 등은 부모와 함께 책읽기와 유아의 언어 지능지수와 관련을 주장했다. 유아의 언어 지능점수를 가장 잘 예견하는 인자는 유추, 평가, 예측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확장전략이었다.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Detemple & Hirschler, 1991; Dickenson & Smith, 1994), 유아의 연령(DeLoache, 1984; Senechal, Comell & Broda, 1995),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맥락(Sorsby,

& Marthew, 1991) 등이 주로 연구되어왔다. 최근에는 이야기책 읽기를 부모, 유아, 본문 간의 협력적인 의미 구성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면서(Neuman, 1996), 상호작용의 결정적인 변인으로서 그림책의 본문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일련의 연구들은 이야기책의 종류가 양육자와 유아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Torr, Clugston, 1999).

일반적으로 그림책의 종류나 장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학자마다 기준이나 분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글자있는 그림책과 글자없는 그림책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고(Senechal, Cornell, Broda, 1995; 한유진, 2003) 일부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친숙한 그림책과 새로운 그림책을 비교하기도 하였다(Goodsit, Perlmutter, 1988).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그림책과 지식정보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Bruner(1986)는 경험을 순서화하거나 실체를 구성하는 인지적인 사고방법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따라 그림책도 정보적, 서술적 그림책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형태는 고유한 세계관 내에서 현실을 구성하고 나타내며(Bruner, 1986), 이는 그림책의 구성, 디자인, 편집, 문장, 삽화 등에 반영된다.

서술적인 그림책에서는 각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건들은 보통 우리가 전형적인 서술적 구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즉 도입(오리엔테이션), 전개, 위기, 해결의 순서로 전개된다. 플롯과 성격묘사를 통해 그 책이 다루는 쟁점이나 주제를 이끌어간다. 또한 은유, 직유, 두운, 반복 등의 요소를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을 묘사하고 이는 독자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등장인물의 행동, 사고, 감정, 표현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들이 동사 형태로 서술된다. 서술적인 그림책에서는 삽화가

이야기의 의미와 전개를 이해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삽화는 색채, 톤, 관점 등의 예술적인 형태를 통해 정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반면에 정보그림책은 사물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현상을 분류하는데 관심을 둔다. 경험을 분류하고 일반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보통 현재 시제가 사용된다. 정보그림책에서는 문학의 요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기술적인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정보책은 현상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 유추, 동어 비교, 반의어 등을 많이 사용한다. 대체로 지식정보책은 일상적인 경험과 관찰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책읽어주기에서 이야기책의 종류가 양육자나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별로 없다(Pellegrini, Perlmutter, Galda, Brody, 1990; Pellegrini, Galda, Jones, Perlmutter, 1995; Torr, Clugston, 1999; Stadler, McEvoy, 2003). 본문의 종류는 부모가 유아에게 하는 말의 구조와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에서 Pellegrini, Perlmutter, Galda, Brody(1990)는 장르가 4세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교수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잠재요인임을 발견했다. 어머니들은 서술적인 책보다 설명체의 본문을 읽을 때 “교수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다. 또한 유아들도 설명체의 본문을 읽을 때 상호작용을 더 많이 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서술적인 이야기 구조는 이야기를 완성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머니들이 교수전략을 사용하거나 상호작용에 할애할 시간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했다. 반대로, 설명적인 본문은 이야기 문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책의 항목들이 순서상으로는,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나 교수전략 사용의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읽기행동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그림책의 본문의 종류가 어머니의 읽기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위해 그림책의 본문의 종류는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과 지식정보책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지식정보책은 한글 자모음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책을 선정하여 이러한 책의 주제가 어머니의 읽기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두번째 변인은 유아의 읽기능력 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읽기행동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유아의 읽기능력 정도와 부모의 그림책 읽기행동을 관련지은 연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tadler와 McEvoy(2003)는 언어능력이 지체된 유아 집단과 언어능력이 평균적인 유아 집단의 부모들의 그림책 읽기행동을 비교한 결과 그림책의 내용과 관련한 상호작용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문자와 관련한 상호작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언어 능력이 지체된 유아들의 부모들이 문자와 관련된 읽기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언어능력 수준이 부모의 그림책 읽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읽기능력 정도에 따른 부모의 그림책 읽기행동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그림책 읽어주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그림책의 장르에 따라 어머니의 읽기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읽기능력에 따라 어머니의 읽기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세 곳의 유아교육기관(유치원 1개소, 어린이집 2개소)에 다니는 만 4세 유아와 어머니 35쌍이다. 각 기관의 만 4세반 학부모들에게 연구참여 동의서를 배부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책읽기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 변인들 즉, 가정의 계층, 교육수준, 그림책 읽어주는 빈도 등을 사전에 조사하였다. 대상 어머니들은 고졸 이상의 학력에, 일주일에 1번 이상씩 책을 읽어 주는 중산층 어머니들이었다. 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4년 5개월이었다. 만 3, 4, 5세 학급 담임교사들을 면담하고 유아들을 면접한 결과, 만 5세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잘 읽는 유아들이 대부분이어서 유아들 간에 읽기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만 3세 유아들은 읽지 못하는 유아들이 대부분이어서 읽기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만 4세 유아반은 잘 읽는 유아와 못 읽는 유아들이 함께 있어서 유아들 간에 읽기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유아의 읽기능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에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만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연구도구

#### 1) 그림책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은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 1권과 한글 자모음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책 1권으로, 총 2권이였다. 지식정보책은 유아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그들이 흥미있어

하는 대상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주는 책(김세희, 2000)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책은 한글 자모음을 주제로 하였다.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은 그야말로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권의 책을 선정할 때 어머니의 책 읽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내용)의 길이, 어휘의 복잡성 등을 가능한 한 유사하게 통제하였다. 먼저 총 쪽수가 유사하면서(30쪽 내외), 어휘와 문장이 만 4세 유아가 읽기에 적절하고 그림도 아름다운 책 3권씩을 장르 별로 선정했다. 이 중 3권은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그림책이었고 나머지 3권은 한글 자모음이 강조된 지식정보책이었다.

이 6권의 책을 연구 대상이 아닌 4세 유아와 어머니 4쌍에게 보여주고 읽게 한 다음, 가장 좋아하는 책을 고르게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책은 악어도 깜짝, 치과의사도 깜짝(고미타로 글, 그림/이종화 옮김, 2000), 기차기차(박은영, 1997)이었다. 악어도 깜짝, 치과의사도 깜짝은 일본작가 고미타로의 작품으로, 악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치과의사선생님도 악어의 입에 손을 집어넣고 치료할 생각에 깜짝 놀라지만, 두 사람이 꼭 참고 노력하여 무사히 치료를 마치게 되는 이야기를 간결한 문장과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그림으로 잘 표현한 서술적인 그림책이다. 기차기차는 한글의 자모음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진 지식정보책이다. 이 책은 각각의 자음과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과 이를 설명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구성되어 자모음에 대한 정보를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두 책은 모두 쪽수가 32면이었다. 두 권의 그림책은 총 쪽수가 30쪽을 넘지만, 그림이 많고 문장이 단순하여 쉽게 읽히며 총 단어 수도 거의 근사하였다.

2) 부모의 읽기행동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는 상황에서 책 읽기 전과 읽는 동안, 이후에 이루어진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녹음하여 이를 모두 전사하였다. 책의 본문을 제외한 어머니의 모든 언어적 상호작용(질문과 설명 포함)은 Hammett, Van Kleeck, Huberty(2003)의 분석범주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글자개념 및 책개념과 관련된 말, 행동관리 및 피드백과 관련된 말,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말 등이다. 어머니의

읽기행동의 분석 범주와 내용은 <표 1>과 같다.

3) 읽기능력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읽기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유아들의 문어인식을 검사한 선행연구들(Bsatjes & Brown, 1997; Mason & Stewart, 1990)에서 사용한 도구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기초학습기능검사(박경숙·윤점룡·박효정, 1989) 중 읽기 I 과 쓰기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

<표 1> 어머니의 읽기행동 분석 범주와 내용

분류	하위항목	내 용
글자개념	음운인식	날자의 소리를 들려주거나, 글자의 소리(음)을 들려주고 해당 글자를 짚거나 말해보게 하는 질문(예, '그' 소리나는 말 뭐가 있을 까?), 운율을 지적하는 것
	문자개념	날자나 단어를 손으로 지적하거나, '글자' '단어' 등의 용어를 사용
	책개념	쪽, 줄, 읽어 등 책(읽기)와 관련된 말을 하는 것
행동관리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말, 유아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하는 말(피드백 주기)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말	제1수준	명명하기; 사물 또는 사람에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묻는 질문 위치 서술하기 : 사물 또는 사람의 위치를 묘사하거나 질문하는 것 수세기; 예를 들면, 나무가 하나, 둘, 셋 등
	제2수준	특징 서술하기; 사물 또는 등장인물의 세부적인 부분이나 특성(크기, 모양, 색깔, 양 등)에 초점 맞추기 장면 서술하기; 본문이나 그림에서 알아낼 수 있는 행동이나 특성, 세부사항 묘사하기
	제3수준	유추하기; 그림이나 본문에 기초하여 그림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을 유추하기(예, 악어는 치과에 오기 전에 뭘 하고 놀았을까?) 회상하기; 읽는 동안 책에 제시된 이전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요약하거나 종합하기(예, 앞에서 기차가 어디, 어디에 갔었지?) 판단/평가하기; 등장인물의 생각 또는 사물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상태나 특성 등(예를 들면, 슬프다 배가 고프다 등)을 판단하거나 해석하기 유사점 찾기; 책에 있는 사물을 비교하기
	제4수준	예측하기; 다음 장에서 내용이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질문하거나 서술하기 사실적인 지식/정의하기; 이야기에 직접 제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허구와 실재를 구분하거나 단어의 의미 정의하기

〈표 2〉 유아 읽기능력검사 도구의 내용 및 문항 수

구 성	내 용	문항 수	점수
단어 인식	1단어, 2단어, 3단어 낱말 카드를 읽어본다.	15	30
철자 재인	읽어주는 문장 중 한 단어의 바른 철자를 골라본다.	5	5
문장읽기	문장의 일부분을 맥락적, 문자적 단서를 이용하여 읽어본다.	10	20
읽기 이해	문장을 읽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을 선택한다.	5	5

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유아교사, 유아교육 전문가로부터 타당도를 검토를 받고 수정, 보완하였다. 읽기능력검사 도구의 내용과 문항 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만 4세 유아 4명과 그 어머니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도구로 사용할 그림책을 선정하고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범주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서울 근교에 위치한 세 곳의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만 4세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책 읽는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어머니들이 오시기 전, 오전시간에 유아들에게 읽기능력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은 교실과 인접한 빈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읽기능력검사 중 단어재인은 한 음절, 두 음절, 세 음절로 구성된 단어, 각각 5개씩을 카드에 기록하여 유아에게 읽게 하였다. 전혀 못 읽으면 1점, 제대로 읽으면 2점으로 평정하였다. 문장읽기는 하나의 문장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을 읽게 하였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아가 일부분만 읽거나 구문적으로 적절한 다른 단어를 응답할 경우 1점, 제대로 읽으면 2점으로 평정하였다. 읽

기이해는 하나의 문장을 읽고 그 내용이 담긴 그림을 4개의 보기 중에서 골라내게 했다. 총 5문항으로, 바르게 고르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평정하였다. 철자재인은 하나의 문장을 읽어주고 그 문장에 나오는 특정 단어를 지적하여 그 단어의 올바른 철자를 4개의 보기 중에서 골라내게 하였다. 총 5문항으로, 맞게 고르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평정하였다.

오후에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책 읽어주는 상황을 녹화하였다. 어머니에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 주도록 부탁하였고, 어머니가 책의 내용을 미리 숙독하는 것은 제한하였다. 책 읽는 순서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18명의 어머니에게는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을 먼저 읽게 하였고, 나머지 17명의 어머니에게는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책을 먼저 읽게 하였다. 함께 책읽기 활동은 어머니가 책을 읽기 시작하거나 책에 대해 유아와 이야기 나누는 시점부터 책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모두 끝나는 시점까지이며, 이러한 전 과정을 녹화하였다.

### 4. 자료 분석

녹화된 어머니와 유아의 그림책읽기 상호작용에서 본문내용 읽기를 제외한 어머니와 유아 간의 언어적, 신체적 상호작용의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전

문가(유아교육 전공 박사) 1인이 평정하였다. 상호작용의 분석단위는 발화였다. 여기서의 발화(한유진, 2003)는 이야기의 중지(중지)에 의해서 다음 발화와 구분되며, 의미의 단위를 구성하는 단어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즉, 발화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의 덩어리로 이것은 하나의 단어로 구성될 수도 있고 문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동일한 내용의 발화는 2회 이상 반복되어도 1회로 평정하였다. 분석에 앞서 평정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평정자 간 일치도는 .90이었다. 두 그림책은 총 쪽수가 각각 32쪽으로 동일하였으며 읽는 데 걸린 시간도 거의 유사하였다. 이야기책 읽기의 평균시간은 3분 48초였으며 1분 27초에서 9분 56초 사이에 분포하였다. 지식정보책 읽기의 평균시간은 3분 42초였으며 1분 22초에서 8분 45초 사이에 분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등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읽기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읽기정도에 따른 읽기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의 읽기능력 검사점수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대상 유아가 4세이므로, 유아의 점수는 양극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어 잘 읽는 집단과 잘 못 읽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값은 아래 <표 3>과 같다. 유아의 읽기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읽기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 두 집단의 읽기능력점수 평균, 표준편차 및 *t* 값

집단 구분	평균(표준편차)	<i>t</i>
잘 못 읽는 집단	6.9(3.76)	19.09***
잘 읽는 집단	33.4(4.45)	

\*\*\**p*<.001

### III. 결과 및 해석

#### 1. 그림책의 장르에 따른 어머니의 읽기행동

<표 4>에서 보면, 어머니의 읽기행동은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글자개념(*t*=-2.68, *p*<.01) 및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t*=1.71, *p*<.01)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글자개념과 관련된 읽기행동은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난 반면,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읽기행동은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책을 읽어 줄 때 더 많이 나타났다.

하위 항목 별로 보면, 글자개념 내에서는 문자개념(*t*=-3.76, *p*<.001)과 책개념(*t*=-2.32, *p*<.01)에 관한 상호작용이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책을 읽어 줄 때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음운인식 역시 일관된 흐름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1.30, *p*>.05).

이야기 내용과 관련한 상호작용은 전반적으로 서술적인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으나

<표 4> 그림책의 장르에 따른 어머니의 읽기행동

읽기행동 하위항목	서술적인책 지식정보책		<i>t</i>	
	M(SD)	M(SD)		
글자개념	음운인식	1.57(8.44)	3.83(6.03)	-1.30
	문자개념	.51(1.76)	4.29(5.52)	-3.76***
	책개념	.51(.82)	1.86(1.45)	-2.32*
	소계	.86(2.96)	3.05(3.74)	-2.68**
이야기 내용 관련	제1수준	3.94(2.75)	7.91(5.51)	-4.80***
	제2수준	8.00(5.83)	4.26(4.39)	3.76***
	제3수준	3.63(2.68)	1.29(1.56)	5.45***
	제4수준	3.11(2.04)	2.03(2.84)	2.00
	소계	4.67(2.61)	3.87(2.89)	1.71**
행동관리	2.03(1.81)	2.89(3.46)	-1.66	

\**p*<.05 \*\**p*<.01 \*\*\**p*<.001



( $t=1.71, p<.05$ ), 그 구체적인 양상은 하위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제2수준( $t=3.76, p<.001$ ), 제3수준( $t=5.45, p<.001$ )의 상호작용은 서술적인 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으나, 제1수준의 상호작용은 지식정보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다( $t=4.80, p<.001$ ). 제4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2.00, p>.05$ ). 즉, 명명하기와 같은 단순한 상호작용은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 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지만, 서술하기, 판단하기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서술적인 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다.

## 2. 유아의 읽기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읽기행동

<표 5>에서 보면, 어머니의 읽기행동은 유아의 읽기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유아의 읽기수준은 어머니의 읽기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5> 유아의 읽기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읽기행동

읽기행동 하위항목	잘 읽는 유아	잘못읽는 유아	<i>t</i>	
	(N=15) M(DS)	(N=20) M(SD)		
글자개념	음운인식	3.40(7.33)	2.17(3.01)	.67
	문자개념	2.36(2.81)	2.42(2.91)	-.59
	책개념	1.13(1.20)	.52(.63)	1.93
	소계	2.30(2.90)	1.70(1.90)	.72
이야기 내용 관련	제1수준	5.16(3.28)	6.50(3.80)	-1.08
	제2수준	5.86(4.46)	6.32(4.18)	-.31
	제3수준	4.40(3.36)	3.60(2.74)	.77
	제4수준	2.50(2.24)	2.62(1.62)	-.19
소계	2.30(2.90)	4.76(2.49)	-.29	
행동관리	3.16(3.06)	1.92(1.35)	1.61	

$p>.05$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읽어주기에서 그림책의 종류가 어머니의 읽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그림책의 종류는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과 지식정보책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지식정보책은 한글 자모음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책을 선정하여 이러한 책의 주제가 어머니의 읽기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읽기행동은 글자개념, 이야기 내용 관련, 행동관리 등의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야기 내용과 관련한 읽기행동은 추상화 정도에 따라 하위 4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어머니의 읽기행동은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글자개념과 관련된 읽기행동은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 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난 반면,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읽기행동은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술적인 이야기책은 그림에 관해 이야기 하기와 같은 내용과 관련된 읽기행동을 많이 이끌어낸 반면, 알파벳책은 음운인식이나 문자개념 등의 형식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이끌어낸다고 보고한 Stadler와 McEvoy(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읽어 줄 책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초기 문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로, 어머니들은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을 읽을 때에는 내용과 관련된 읽기행동( $M=4.67$ )을 많이 나타낸 반면 문자와 관련된 읽기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M=.86$ ). 그러나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책을 읽을 때에는 문자와 관련된 읽기행동( $M=3.05$ )과 함께 내용과 관련된 읽기행동( $M=3.87$ ) 역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알파벳책과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을 읽어줄 때 어머니의 읽기행동을 분석한 Stadler와 McEvoy(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들은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역할을 자녀와 책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상호작용은 읽는 책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문자와 관련된 상호작용은 특정한 경우 즉,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책을 읽을 때에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위 항목 별로 보면, 글자개념 내에서는 문자개념과 책개념에 관한 상호작용이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책을 읽어 줄 때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음운인식 역시 일관된 흐름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야기 내용과 관련한 상호작용은 전반적으로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으나, 그 구체적인 양상은 하위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제 2수준, 제 3수준의 상호작용은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으나, 제 1수준의 상호작용은 지식정보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으며 제 4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명명하기와 같은 단순한 상호작용은 지식정보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지만, 서술하기, 판단하기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이야기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ellegrini(1990), Potter & Haynes(2000)의 연구와 일관된다. Potter & Haynes(1999)는 20명의 어머니에게 4권의 글자 없는 그림책을 자녀에게 읽어 주게 한 결과, 어머니들은 지식정보그림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은 '교수전략'을 사용했으며, 명명하기는 지식정보책을 읽을 때, 서술하기는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을 읽어줄 때 더 많이 사용하였다. 대체로,

서술적인 책은 등장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므로 연속적인 사건과 등장인물, 문제, 갈등 및 이에 대한 해결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한 명명하기보다 서술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설명적인 본문은 이야기 문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책의 항목들이 순서상으로나,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일종의 교수전략으로서 사물의 명칭을 질문하거나 이름 붙이는 단순한 명명하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유아의 읽기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읽기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아의 읽기수준이 어머니의 읽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결과를 비교할 수가 없다. 다만 Stadler와 McEvoy(2003)는 언어능력이 지체된 유아 집단과 언어능력이 평균적인 유아 집단의 부모들의 그림책 읽기행동을 비교한 결과 그림책의 내용과 관련한 상호작용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문자와 관련한 상호작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언어 능력이 지체된 유아들의 부모들이 문자와 관련된 읽기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언어능력 수준이 부모의 그림책 읽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유아의 읽기능력에 따라 부모의 읽기행동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였다. 즉, 잘 읽는 유아의 부모는 유아의 주의를 문자에 집중하게 유도한다거나, 오히려 잘 못 읽는 유아의 부모들이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책을 문자학습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정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읽기

능력은 부모의 그림책 읽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본문을 제외한 그 외의 어머니의 말이나 질문을 읽기행동으로 간주했고, 어머니의 읽기행동의 양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어떤 어머니는 그림책을 읽는 동안 단 한 마디의 말만 한 반면에 어떤 어머니는 200마디 이상의 말을 하였다. 그림책 1권을 읽는데 걸린 시간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을 읽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3분 48초였다. 가장 빨리 읽은 쌍은 1분 27초였고 가장 오래 읽은 쌍은 9분 56초였다.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책을 읽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3분 42초였으며 최단 1분 22초에서 최장 8분 45초 사이에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개인 간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림책의 종류 간의 차이를 보는 결과에서도 표준편차가 크게 나와서 의미 있는 비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부모교육의 측면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림책을 읽어줄 때 성인과 유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림책과 관련한 상호작용은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므로 많이 이루어질수록 좋다. 그러나 일부 어머니들은 자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질문 자체를 저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엄마가 다 읽고 나서 이야기 해.” 그림책 읽기에서 성인의 역할을 단순히 ‘본문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림책은 유아기의 놀이나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체이고 접촉 기회가 매우 높은 매체이기도 하다. 너무 일반적이고 익숙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타성적으로 해 왔던 방법이기도 하다. 어머니들이 그림책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적으로 그림책 읽어 주는 방법, 양질의 그림책 선택하는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읽어 준다면 그림책 읽기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어머니의 읽기행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들은 어떤 책을 읽던지 종류에 상관없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야기 중심의 서술적인 책을 읽을 때에는 문자에 관한 상호작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지식정보책을 읽을 때에는 문자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책의 종류에 따라, 또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글을 다룬 지식정보책은 글자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글자나 읽기, 쓰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유아에게는 그림책 읽기가 문자학습의 자연스러운 맥락을 형성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 중 일부 어머니들은 한글을 주제로 한 지식정보책을 읽어줄 때에도 한글 자모음이나 문자와 관련한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책의 본문의 종류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책을 읽어 준다면 ‘재미’와 ‘자연스러운 학습’의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성인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라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를 봐 가면서 유아가 흥미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이든지 유아가 그림책에서 얻는 감동이나 재미보다 ‘학습’이 우선될

경우, 유아가 책에 대한 본질적인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한유진(2003). 글없는 그림책과 이야기 그림책의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 및 유형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3), 17-30.
- Bruner, J.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ss : Harvard U. P.
- Bus, A., van Ijzendoorn, M., & Pellegrini, A. (1995). Joint book reading makes for success in learning to read : A meta-analysis on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literac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5(1), 1-21.
- Catts, H., & Kamhi, A. (1999). *Language and reading disabilities*. Boston : Allyn & Bacon.
- Debarshe, B. (1993). Joint picture-book reading correlates of early oral language skill. *Journal of Child Language*, 20, 455-461.
- DeLoache, J. S. (1984). What's this? Maternal questions in joint picture book reading with toddlers. *The quarterly Newsletter of the Laboratory of Comparative Human Cognition*, 6(4), 87-94.
- DeTemple, J. M., & Hirschler, J. A. (1991, October). Mothers' comments during book reading as a source of narrative structure from preschoolers. Paper presented at the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Boston.
- Leseman, P. P. M., & De Jong, P. E. (1998). Home literacy : Opportunity, instruction, cooperation and social-emotional quality predicting early reading achievement. *Reading Research Quarterly*, 33, 294-318.
- Detemple, J. M., & Snow, C. E. (1996). Styles Of parent-child book-reading as related to mothers' views of literacy and children's literacy outcomes. In J. Shimron(Eds.), *Literacy and Education : Essays in honor of Dina Feitelson*(pp.49-68). Cresskill, NJ : Hampton Press.
- Dickinsen, J., & Smith, M. (1994). Long-term effects of preschoolers' book readings on low income children's vocabulary and story comprehension. *Reading Research Quarterly*, 29, 105-122.
- Goodsitt, J., Raitan, J., & Perlmutter, M. (1988). Interaction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 children when reading a novel and familiar book.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1, 489-505.
- Hammett, L. A., Van Kleeck, A., & Huberty C. (2003). Patterns of parents' extratextual interactions during book sharing with preschool children : A cluster analysis stud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8(4), 105-122.
- Heath, S. B. (1982). What no bedtime story means : Narrative skills at home and school. *Language in Society*, 11, 49-76.
- Leseman, P. P. M., & De Jong, P. E. (1998). Home literacy : Opportunity, instruction, cooperation and social emotional quality predicting early reading achievement. *Reading Research Quarterly*, 33, 294-318.
- Lonigan, C., & Whitehurst, G. (1998). Relative efficacy of parent and teacher involvement in a shared-reading intervention for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backgroun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2), 263-290.
- Neuman, S. (1996). Children engaging in storybook reading : The influence of access to print resources opportunity and parental interac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495-513.
- Pellegrini, A., Galda, L., Jones, I., & Permuter, J. (1995). Joint book reading between mothers and their Head Start children : Vocabulary development in two text formats. *Discourse Processes*, 19, 441-463.
- Pellegrini, A., Permuter, J., Galda, L., Brody., G.

- (1990). Joint book reading between black Head Start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61, 443-453.
- Pellegrini, A. D., Brody, G. H., & Sigel, I. E. (1985). Parents' teaching strategies with their children : The effects of parental and child status variable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4, 509-521.
- Potter, C. A., & Haynes, W. O. (2000). *The effects of genre on mother-toddler interaction during joint book read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Scarborough, H., & Dobrich, W. (1994). On the efficacy of reading to preschoolers. *Developmental Review*, 14, 245-302.
- Senechal, M., Cornell, E. H., & Broda, L. S. (1995).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of parent-infant interactions during picture-book read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317-337.
- Senechal, M., Cornell, E. H., & Lawson, E. P. (1996). Knowledge of storybook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vocabula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3), 520-536.
- Snow, C., Burns, M., & Griffin, P.(Eds.). (1998). *Preventing reading difficulties in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Sorsby, A. J., & Martlew, M. (1991). Representational demands in mothers' talk to preschool children in two contexts : Picture book reading and a modeling task. *Journal of Child Language*, 18, 373-395.
- Stadler, M. A., & McEvoy, M. A. (2003) The effect of text genre on parent use of joint reading strategies to promote phonological aware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502-512.
- Torr, J., & Clugston, L. (1999). A comparison between informational and narrative picture books as a context for reasoning between caregivers and 4-year-ol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59, 25-41.
- Van Kleeck, A., & Beckley-Mccall, A. (2002). A comparison of mothers' individual and simultaneous book sharing with preschool siblings : An exploratory study of five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1, 175-189.
- Van Kleeck, A., Gillam, R., Hamilton, I., & McGrath, C.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class parents' book sharing discussion and their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0, 1261-1271.
- Wells, C. (1985). Preschool literacy-related activities and success in school. In D. Olson, N. Torrance, & A. Hildyard(Eds.), *Literacy, language, and learning :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reading and writing*(pp.229-255). Cambridge, M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년 6월 30일 투고 : 2006년 9월 9일 채택